



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⑱ 유기농업 발상지 다카하다음

# 대도시 소비자와 '웰빙 공감'... '安心 농산물' 직거래

유기농업을 통해 지역 전체가 변화하는 지역이 있다.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신간선 열차를 타고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아마가타(山形)현 다카하다음이 그 곳이다.

다카하다음은 아마가타현의 남쪽에 위치하고 벼농사와 과수 그리고 축산을 포함한 복합 경업을 한다. 모든 농산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 '마호로바의 고향'으로 불린다. '마호로바'는 접접이 산으로 둘러싸여 경치가 좋고 곡식이 풍요로우며 인심이 좋은 지역을 말하는데, 일본 전국에서 10여 개 지역이 마호로바로 불린다.



다카하다음 유기농업 연구자들의 숙박시설. 일본의 학생과 회사원, 정년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미국의 주부, 한국 유학생까지 연수에 참가해 유기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 일본 최초 유기농 운동 추진

이 지역은 1973년부터 일본 최초로 유기농업 운동을 읍 전체가 추진했다. 20대의 청년 40명이 모여서 다카하다음 유기농업연구회를 결성한 것이 시작이다. 이들은 '인간의 건강을 고려한 농업' '토양의 건강을 생각하자' '농민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급해야 한다' '지역 전체의 환경을 생각하자' 등 다양한 테마를 갖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추진했다. 지금은 유기농업의 발상지로 인정되고 있고, '유기농업은 다카하다음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카하다음이 유기농업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유명하게 되기까지는 이치라쿠 데루오(一樂照雄) 씨의 영향이 크다. 그는 협동조합의 중앙은행적인 농민중금(農民中金) 상무이사를 지냈고 협동조합 운동가로서도 유명하다. 이치라쿠 씨는 1971년 생명과 환경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유기농업연구회를 창립했다.

일본 유기농업연구회 창립 선언문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은 도시민과 제휴(提携)를 통

## 손쉬운 화학비료 거부 '고난의 농법' 고수 쌀에서 시작...과수·채소·쇠고기까지 확대

해서 소비자의 식생활 의식 변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하다음의 인구는 현재 2만 7천여 명이고, 약 7천 세대가 살고 있다. 그중 농가호수는 2천여 세대이고 농가호수의 50%인 1천여 세대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30년간 인구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유기농업을 시작한 이후 약 80호가 대도시에서 이사 와서 살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기도 한 농민 호시(星) 씨이다.

1970년대 초 쌀 주산지인 아마가타 지역에

서도 규모 확대와 기계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쌀 뿐만 아니라 과수와 채소 농사에도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30대 후반이던 호시 씨도 농업 근대화의 선두를 지향했다.

그러나 분무기를 등에 짊어지고 농약을 뿌리던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넘어지고, 허약체질인 호시 씨도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마다 몸져눕게 되었다. 지력은 쇠퇴하고 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반딧불이도, 피라미와 같은 물고기도, 소금쟁이나 물매미 등도 언제부터인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호시 씨는 20대 전반의 젊은 농업인 41명과 함께 '다카하다음 유기농업연구회'를 결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벼농사도 화학비료나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퇴비 등 유기비료에 의한 토양 만들기를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이를 본 농민들은 호시 씨의 머리가 이상해졌다. 머리 죽이는 농매미라느니 하며 비아냥거렸다.

호시 씨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잃어버린 환경을 복원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유기농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렸다"고 회상한다. 그 후 유기농법은 쌀에서 과수와 채소까지 확대 되었다.

호시 씨가 중심이 된 유기농업 운동이 한창이던 1990년에는 유기농업 교육기관인 '다카

하다 공생숙(共生塾)'이 탄생했다. 이것은 회원들의 학습 집단으로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생숙은 연회비 5천엔을 1계좌로 해서 2계좌 이상 가입한 97명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 구성은 관내가 40%이고 나머지 60%는 지역 외의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 농업위기 극복 키워드로

이러 1992년부터는 '마호로바의 농업학교'를 개교했다. 도시 주민에게 농업과 함께 하는 생활을 체험하게 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료생은 학생, 회사원, 정년귀농을 생각하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최근에는 미국에 사는 일본인 주부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지역 내 안전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해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을 제정했다.

아다치쿠쓰네(安達生桓) 씨는 요네사와 향목장을 사례로 쓴 '농의 시스템, 농의 문화'라는 제목의 책에서 유기농업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농업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업 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식생활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를 통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며 유통하는 것밖에 없다."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 통신원〉eshyun21@naver.com

### ■ 아마가타현의 유기농업 단체들 ■

#### 농협 판매보다 현미 가마당 1만엔 비싸

**요네사와(米澤) 향목장(郷牧場)** 이곳은 270호의 선진 농가가 참여해 8개의 생산 및 유통 법인을 만들고 80ha의 농지에서 유기농법으로 쌀, 채소, 과일, 닭고기, 쇠고기를 생산하여 연간 28억 엔을 생협과 대지를 지키는모임 등 유기농산물 유통 업체에 직거래로 판매하는 법인 연합체다.

일본에서 쌀값은 현미의 경우 60kg 한 가마당 1만 5천엔에 농협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요네사와 향목장의 유기재배 쌀은 2만 6천엔에 직거래로 판매된다.

#### 풍력이용 자연 건조·판매직전 도정...품질 뛰어남

**미(米)시스트 쇼나이** 같은 연령층 8농가가 1천만 엔씩 출자하고 국고 보조를 50% 받아서 총 1억 6천만 엔으로 건조, 저장, 정미 시설을 만들었다. 연간 9천가마(60kg 기준)를 생산해 판매한다. 감광성, 감화화비료 농법으로 재배하므로 정부의 특별 재배비 인증을 받았다.

이 회사의 쌀은 풍력을 이용해 자연 건조하고 벼 상태로 저장해서 판매 직전 도정해서 직거래하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나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현미 가격은 60kg 한 가마당 2만 엔이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면 1만 5천엔에서 수수료 3천엔을 공제하고 1만 2천엔만 받는데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 쌀 전용시설 이용조합 만들어 일관된 품질관리

**오키다마 흥농사(興農舎)** 주식회사 오키다마 흥농사는 1989년 발족한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회사이다. 85명의 농가와 함께 쌀,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호박, 무, 사과, 서양배, 양앵두 등을 유기재배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6명의 직원이 전업으로 종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농산물 판매액은 연간 2억 엔이고 농가당 구매액은 1억 엔이다.

유기재배 쌀 전용시설 이용조합을 만들어 유기재배한 쌀만 건조, 저장, 가공하는 '쌀공장 다카하다음'을 유회회사로 설립했다. 쌀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를 이행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쌀 농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 윤작에 의한 저투입 순환농법으로 유기재배

**겟산(月山) 파일릿 팜** 윤작에 의한 저투입 순환농법으로 21ha의 밭에서 감자, 당근, 콩 등 50여 품목을 유기재배하여 직접 가공, 판매하는 회사다.

소마(相馬) 사장은 "이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물을 중심으로 윤작하고 유기농업을 하기로 회사 설립 당초부터 작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념을 갖고 1977년 겟산 산록에 조성된 처녀지를 무대로 대규모 유기농업 실천농장을 시작했다. 21ha의 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2개소의 가공공장에서 무첨가, 무착색 상태의 간장절임과 소금절임으로 가공된다. 제품은 생협이나 유기농산물 유통 업체를 통해서 전량 판매된다.



호시 씨가 주도하는 유기농업 연수 장면. 연수회는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의지로 열기가 매우 높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건강사업"  
| 회사와 함께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Image of various fruits and vegetables]  
062-675-5454, 010-9602-0000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채원장 직접시술권리  
가발  
심는가발 탄생!!  
전남지역 지정포진  
[Image of three men in suits]  
대신가발남녀맞춤에술원